

#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렇게도 마음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던 푸줏간 아저씨가 변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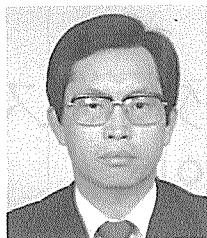
고기 한근을 달라고 할때에 푸줏간 아저씨가 노련한 칼 솜씨로 한번에 썰어서 저울에 올려 놓으면 바늘 눈금은 6백g을 정확히 가리키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덤을 조금 썰어서 같이 신문지에 싸 주었기 때문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다.

혹시 바늘 눈금이 6백30g 정도를 가리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고기를 덜어 내지 않고 오히려 예의 그 덤까지 주면서 가격은 꼭 한근값을 받았는데, 그 푸줏간 아저씨가 이제는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푸줏간 아저씨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변한것은 그 푸줏간의 저울이었다. 즉 예전의 눈금저울에서 이제는 숫자가 정확히 표시되는 디지털저울로 바뀐 것이다. 디지털 저울에 올려진 고기는 1g 초과분만큼 가격이 합산되어 나타나므로 고기를 사러간 아주마도 값을 깎을 수 없고 고기를 파는 아저씨도 인정사정없이 값을 다 받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우리의 주변은 예전의 눈금저울과 같던 아날로그時代에서 디지털時代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아날로그時代를 못벗어나고 있는 경우



## 여인갑

삼성휴렛팩커드 전무이사

가 많이 있다. 『적당히』라는 말이 아날로그時代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 같다.

사무실에서 봉투나 종이가 필요할 때 그냥 몇장만 갖다달라는 부탁을 하는것을 가끔본다. 하지만 부탁한 사람은 다 쓴 후에 몇장만 남아도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 자네는 씹씹이가 너무 커』라고 말하며, 혹시 모자라기라도 한다면 『자네 왜 이렇게 손이 작나. 좀 크게 살아봐』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다.

처음부터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부탁했다면 되었을텐데 적당히 갖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심부름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결과를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다.

아날로그식 지시나 부탁이 아직도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환경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점차 디지털化 되어가고 있지만 아날로그 時代의 人情까지 메달라 가서는 안될 것이다.